

# 대학생의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이정표 이충규 박동일

## ◀ 목 차 ▶

---

###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2

### 제2장 본 론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	-------	---

### 제3장 조사결과

3.1. 평소 농촌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	.....	3
3.2 한미 FTA에 관한 의식	.....	5
3.3 농촌을 접하는 경로에 관련한 조사	.....	7
3.4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의식 조사	.....	10
3.5 농촌의 미래상에 관한 의식	.....	12

### 제4장 결 론

제1절 결 론	.....	15
제2절 제 언	.....	16
참고문헌	.....	17

# 대학생의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이정표 ▪ 이충규 ▪ 박동일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경덕(2004)은 연령별·성별 농촌인구전망을 2000년의 9,342천명에서 2010년에 8,518천명(남자:49.6%, 여자:50.4%), 2020년 7,480천명(남자:49.7%, 여자:50.2%)으로 200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0.9%(남:-0.9%, 여:-0.9%)이고 201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남:1.3%, 여:1.3%)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이라 할 수 있는 10-30대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201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 한다고 전망하였다. 현재의 농촌은 현실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환경,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촌의 문제는 절대로 단기적인 안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농촌이 짧은 시간에 어려워진 게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잡은 주제인 대학생이 농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교육열에 힘입어 최근의 대학진학률이 50%를 상회하면서(통계청, 1996) 대학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들이 생각하는 농촌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더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경제성장, 산업화, 고학력화, 세계화 등의 급변하는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이므로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농촌 가치관을 지닐 수 있다. 대학생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농촌의 문제

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 농촌의 모습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논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1.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농촌의 현재의 이미지 3) 농촌의 미래의 이미지 4) FTA관련한 대학생의 생각을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충북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며, 연구방법은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지 조사이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보조원(2명)의 도움으로 2007년9월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서 배포된 설문지는 150부이며, 회수된 142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139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교차분석(Chi-Square 검증)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각 질문을 분석했다. 교차분석시  $*p < .05$  안에 드는 유의한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결과에 신뢰를 더했다.

## 제2장 본 론

###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제시된바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가 50.4%, 남자가 49.6%이며, 학년은 1학년 18.7%, 2학년 24.5%, 3학년 39.6%, 4학년 17.3%이다. 다음으로 거주지는 도시가 84.2%, 농촌이 15.8%로 2005년 통계연보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공을 보면, 농업생명환경계열이 21.6%, 인문·사회계열이 3.6%, 이공·자연계열이 38.1%, 예체능·사범계열이 36.7%이다. 현재 농촌에 3촌 이내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한다에 65.5% 거주하지 않는다에 34.5%를 나타냈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백분율%)

N=139		
성별	남자	69 (49.6%)
	여자	70 (50.4%)
학년	1학년	26 (18.7%)
	2학년	34 (24.5%)
	3학년	55 (39.6%)
	4학년	24 (17.3%)
대학교 전공	농생환·계열	30 (21.6%)
	인문·사회계열	5 (3.6%)
	이공·자연계열	53 (38.1%)
	체능·사범계열	51 (36.7%)
농촌의 연고여부	거주여부 (O)	91 (65.5%)
	거주여부 (X)	48 (34.5%)
현재 거주 장소	시지역	117 (84.2%)
	군지역	22 (15.8%)

### 3. 조사결과

#### 3.1. 평소 농촌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

현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평소 생각하는 농촌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2-1>와 같다.

먼저 농촌에 살고 싶냐 는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기준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라고 대답한 인원이 45명(32%) 부정적이다 34명(24%) 보통이다 60명(43%) 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농촌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훗날 귀농의 의사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고루 분포되어 있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앞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말했듯이 총 조사대상 139명중 농촌의 연고를 둔 대상자는 91명이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48명이었다. 그 대상자들의 특성대로 <표2-1>의 질문에 대한 분석을 하면 <표2-2>과 같다. <표2-2-1>에서 보이는 바는 농촌에 조부모님을 포함한 연고지가 있는 경우 농촌에 사는 것 자체와 나중의 귀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데 반해 농촌에 연고

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강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삶 자체가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어 전반적인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미비한 농촌에 살기 싫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2-2>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년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로써 저 학년 때 막연한 생각위주 였던것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현실성에 기반을 뒀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직종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이다 52명(37%) 부정적이다 26명(19%) 보통 61명(4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 환경에 대한 물음이다. 먼저 주거환경에 대한 물음에선 부정적이다 의 의견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36%씩으로 좋지는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의료, 교육, 문화시설 및 복지여건의 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농촌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 (백분율 %)

질 문	긍정적	부정적	보통이다
당신은 농촌에 살고 싶은가요 ?	32	24	43
당신은 훗날 귀농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34	35	32
농업 관련 직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농업을 포함한 농업관련 직종)	37	19	44
농촌 주거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매우 잘 되어있다 - 매우 긍정적)	29	36	35
농촌 의료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2	68	19
농촌 교육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9	69	22
농촌 문화시설 및 복지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1	71	19

<표2-2-1> 농촌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과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귀농의사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거주 여부	예	8	33	25	19	6	91	15.473 (a)
		88.9%	86.8%	56.8%	50.0%	60.0%	65.5%	
	아니오	1	5	19	19	4	48	
		11.1%	13.2%	43.2%	50.0%	40.0%	34.5%	
Total		9	38	44	38	10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표2-2-2> 농촌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과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교육환경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학년	1 학년	1	2	9	6	8	26	21.750(a)**
		100.0%	18.2%	30.0%	8.0%	36.4%	18.7%	
	2 학년	0	4	8	21	1	34	
		0%	36.4%	26.7%	28.0%	4.5%	24.5%	
	3 학년	0	3	9	33	10	55	
		0%	27.3%	30.0%	44.0%	45.5%	39.6%	
	4 학년	0	2	4	15	3	24	
		0%	18.2%	13.3%	20.0%	13.6%	17.3%	
Total		1	11	30	75	22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 3.2 한미 FTA에 관한 의식

요즘 한편 한미 FTA에 관해 농민들의 촉각이 곤두섰던 상황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결과가 <표3>이다. 정부의 주요 안건이었던 FTA를 농업쪽 측면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수입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등 여러 협정이 타결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이 피해를 입을꺼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139명중 13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정부에 대한 항의가 적절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9%인 109명이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아니오 라고 대답한 30명의 의견으로는 ‘항의는 이해하지만 시위의 정도가 너무 격렬했다.’, 무역개방을 통한 단계 더 발전하자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이번 한미 FTA로 인한 어려움을 지자체와 농촌 스스로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108명의 사람이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다’ 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개방되는 값싼 수입 쇠고기를 구매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55명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다. 그리고 한미 FTA가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에 끼칠 영향은 이란 질문에는 32명(23%)이 긍정적이고 69명(50%)이 부정적으로 37명(27%)이 보통수준으로 머무른다, 라는 결과를 보였다.

<표3-1> 한미 FTA에 관한 의식

(백분율 %)

질문	예	아니오
FTA로 인해 농촌이 피해를 입을꺼라고 생각하는가 ?	93.5	6.5
FTA에 의한 어려움을 농촌 스스로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5	78.5
FTA관련 농민들의 항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78	22
수입 쇠고기를 구매하시겠습니까?	40	60

<표3-2> FTA로 인해 농촌의 피해에 대한 의식과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기질영향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성별	남자	1 100.0%	22 71.0%	18 48.6%	20 40.8%	8 38.1%	69 49.6%	9.315(a)**
	여자		9 29.0%	19 51.4%	29 59.2%	13 61.9%	70 50.4%	
Total		1 100.0%	31 100.0%	37 100.0%	49 100.0%	21 100.0%	139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표3-2>와 <표3-3>은 FTA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의식과 관련해 남, 여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로써 <표3-2,3>에서 볼 수 있듯이 남, 여간 의식차이에선 여자가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3> 농촌의 위기극복능력에 대한 의식과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위기극복		Total	Value
		예	아니오		
성별	남자	21 70.0%	48 44.0%	69 49.6%	6.344(b)***
	여자	9 30.0%	61 56.0%	70 50.4%	
Total		30 100.0%	109 100.0%	139 100.0%	

  

		위기극복		Total	Value
		예	아니오		
사는곳	군,면		22 20.2%	22 15.8%	7.194(b)***
	시 단위	30 100.0%	87 79.8%	117 84.2%	
Total		30 100.0%	109 100.0%	139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특히 사는 곳에 있어서 교차분석 한 결과 현재 행정구역상 농촌으로 분류되는 군, 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농촌의 위기극복능력에 대해위기에 처할 경우 스스로 대처 할 수 없을 것 이라는데 에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 이것

은 다분 학생들만의 생각이라고 단정 짓기엔 이미 농촌의 주민이며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생각이기에 결코 간과해선 안 될 문제 이다

<표3-3> 농촌의 위기극복능력에 대한 의식과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기질 영향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사는곳	군,면		2	4	8	8	22	10.758(a)**
			6.5%	10.8%	16.3%	38.1%	15.8%	
	시 단위	1	29	33	41	13	117	
		100.0%	93.5%	89.2%	83.7%	61.9%	84.2%	
Total		1	31	37	49	21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 3.3 농촌을 접하는 경로에 관련한 조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가장 가까이 농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의 순위를 매긴 것이 <표4-1> 이다. 대학생들이 농촌을 접하는 방법은 <표4-1>에 제시된바와 같이, 5가지(TV, 인터넷, 직접방문, 신문 잡지, 기타)로 나누어서 우선순위 마다 최대 5점에서 최소 1점까지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였다. 항목 당 백분율은 (항목득점수/분류총득점수)\*100으로 구하였다. 대체적으로 어느 특성으로 분류를 해도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닿았고 상대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는 그리 큰 효율을 못 얻었다. 농촌지역에 가족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방문 순위가 가장 높았고, 눈여겨볼 점은 학년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학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직접방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4학년의 경우엔 직접방문의 기회가 더 잦고 인터넷을 통해서 적었다.

<표4-2>에서 보면 현재 주로 농촌을 방문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질문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주거 또는 가족이 살아서라는 대답과 명절 때 친지방문 등의 대답이 97명으로 전체의견의 70%에 해당되고 휴가 및 피서목적방문, 농활동 봉사활동의 목적의 방문의 경우 41명(3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곳을 방문하는 빈

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여러 목적의 경우에 따라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4-1> 가장 가까이 농촌을 접할 수 있는 방법 (백분율 %)

순 위 \ 분류		분류				
		1	2	3	4	5
연고	가족거주	직접방문 (31.7%)	TV (22.6%)	인터넷 (20.8%)	신문,잡지 (17.4%)	기타 (7.5%)
	가족미거주	TV (32.1%)	직접방문 (22.0%)	인터넷 (20.7%)	신문,잡지 (17.8%)	기타 (7.4%)
학년	1학년	인터넷 (31.2%)	TV (22.6%)	직접방문 (21.2%)	신문,잡지 (17.6%)	기타 (7.4%)
	2학년	TV (32.1%)	직접방문 (17.6%)	인터넷 (20.8%)	신문,잡지 (22.3%)	기타 (7.3%)
	3학년	TV (32.0%)	직접방문 (22.4%)	인터넷 (20.7%)	신문,잡지 (17.6%)	기타 (7.2%)
	4학년	직접방문 (32.0%)	TV (21.9%)	인터넷 (20.6%)	신문,잡지 (18.0%)	기타 (7.5%)
성별	남자	인터넷 (31.7%)	TV (22.7%)	직접방문 (20.9%)	신문,잡지 (17.3%)	기타 (7.3%)
	여자	TV (31.7%)	인터넷 (22.5%)	직접방문 (20.8%)	신문,잡지 (17.5%)	기타 (7.5%)
전공	농과계열	TV (30.6%)	직접방문 (22.7%)	인터넷 (22.2%)	신문,잡지 (16.9%)	기타 (7.7%)
	비농과계열	TV (32.1%)	인터넷 (22.7%)	직접방문 (20.2%)	신문,잡지 (17.5%)	기타 (7.4%)

<표4-2> 농촌의 방문목적 및 빈도 조사 (백분율 %)

<b>• 주로 농촌을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b>		
(1) 주거 또는 가족이 살아서	47명	33.8 (%)
(2) 명절 때 친지방문	50명	36.0 (%)
(3) 휴가 및 피서 목적으로 방문	17명	12.2 (%)
(4) 농활 또는 봉사활동 목적으로 방문	4명	2.9 (%)
(5) 기타	20명	14.4 (%)
<b>• 농촌을 방문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십니까?</b>		
(1) 1년에 1회	41명	29.5 (%)
(2) 6개월에 1회	36명	25.9 (%)
(3) 3개월에 1회	24명	17.3 (%)
(4) 한 달에 1회	37명	26.6 (%)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연고 분포에 따라 방문목적 및 빈도 분석을 하면 <표

4-3>와 같다. <표4-3>에 보는바와 같이 농촌에 연고지가 있는 경우엔 총 91명중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81명이 친지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농촌을 찾았고 그 빈도 또한 한 달에 한 번 꼴로 잦은 횟수의 방문이 많았다. 하지만 농촌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친지방문의 목적 보다는 휴가 및 피서의 목적의 방문(총 48명중 19명)과 함께 기타 다른 방문의 목적으로 농촌을 찾고 그에 따른 빈도 또한 휴가를 목적으로 방문하기에 1년에 한번 꼴의 방문이 가장 많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농촌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조사한 내용 중 ‘심심하고, 재미없다’, ‘명절 때 가는 조부님댁’ 이런 단순 답변들이 많았다. 대상자들이 농촌은 부모님은 살아도 나의 주거공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조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 지어 나온 결과이지만 대상의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지금의 이 결과와 큰 차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표4-3> 농촌의 방문목적 및 빈도 조사 - 연고지분류에 따른 조사

		1)방문목적					Total	Value
		(1)	(2)	(3)	(4)	(5)		
거주 여부	예	46	36	4	2	3	91	56.702(a)**
		95.8%	72.0%	23.5%	50.0%	15.0%	65.5%	
	아니오	2	14	13	2	17		
		4.2%	28.0%	76.5%	50.0%	85.0%		
Total		48	50	17	4	20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표4-3> 농촌의 방문목적 및 빈도 조사 - 연고지분류에 따른 조사 \*\*\* $p < .001$

		방문빈도				Total	Value
		(1)	(2)	(3)	(4)		
거주 여부	예	16	25	17	33	91	22.583(a)***
		39.0%	69.4%	70.8%	89.2%	65.9%	
	아니오	25	11	7	4	47	
		61.0%	30.6%	29.2%	10.8%	34.1%	
Total		41	36	24	37	138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1)방문목적, 빈도 의 번호는 설문번호와 동일

### 3.4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의식 조사

국민소득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한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농촌 농업 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 하여 농촌 · 농업 관광 사업은 도 · 농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국가사업의 일환인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의식조사에 관한 결과가 <표5-1>과 같다. 국가에서 지정, 지원하는 농촌체험마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0%에 가까움 97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접하는 경로나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농생환 대학과 다른 대학 간의 체험마을의 유무에 비교하면 알려지지 않음과 광고의 부족이 절실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표5-1>농촌 체험마을에 관한 의식

단위 : 명 (백분율 %)

질문	예	아니오
국가에서 지정, 지원하는 농촌체험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42 (30 %)	97 (70 %)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향후 5년~10년 중, 장기적인 기간이내)	81 (58 %)	58 (42 %)

  

질문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이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
농촌체험마을이 장기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꺼라고 생각하십니까?	13 (9.4%)	63 (45.3%)	46 (33.1%)	14 (10.1%)	2 (1.4%)
대중매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농촌은?	6 (4.3%)	48 (34.5%)	63 (45.3%)	21 (15.1%)	0 (0%)
당신이 농촌을 휴양 목적으로 갔다면 만족도는?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매우 불만족
	19 (13.7%)	70 (50.4%)	34 (24.5%)	7 (5.0%)	0 (0%)

향후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엔 81명 (58%)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아니오 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59명이었다. 하지만 체험마을에 있어 지금은 모르지만 알려지고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다면 언제든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되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이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다 로 답한 인원이 전체 76명(56%)이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46명(33%)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인원은 16명으로 11% 낮은 수치를 기록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농촌체험마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서본 농촌마을의 모습도 긍정적 54명에 보통이다 63명으로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조사했고, 휴양목적으로 농촌을 방문 했을 경우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향에 온기분이며, 도시와는 다른 공기와 여유가 있다, 경치와 볼거리가 많다 등 70~80%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꼈다.

<표5-2> 농촌체험마을의 인지여부에 대한 결과와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마을인지여부		Total	Value
		예	아니오		
성 별	남 자	29	40	69	9.068(b)***
		69.0%	41.2%	49.6%	
	여 자	13	57	70	
		31.0%	58.8%	50.4%	
Total		42	97	139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표5-3>은 체험마을의 직접적인 도움여부와 매체를 통한 농촌의 모습을 거주 지역에 구분하여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표5-3>의 자료에 나타나듯이 군, 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도시에 사는 학생들의 생각은 방문의 여부를 떠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할 것이고 도움이 될 꺼라 생각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표5-2> 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남녀의 성비가 동일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농촌체험마을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의 1/2 수준도 채 되지 못했다. 이 분석 결과를 다시 농촌에 살지 않는 여성까지 고려해 교차분석을 할 경우 시 지역에 사는 여성은 체험마을에 대해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결과가 나온다. 아직 사회에 발 딛지 않은 여학생의 경우이기에 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향후 10년 뒤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므로 휴양 공간의 선정에 있어 인지 여부도 모른다면 그만큼의 발전의 효과도 기대하

기 힘들다.

<표5-3> 체험마을을 거주 지역에 따른 교차분석과 관련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 단위 : 명 (백분율 %)

		장기적도움여부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사는 곳	군, 면	3	7	9	1	2	22	13.383(a)***
		23.1%	11.1%	19.1%	7.1%	100.0%	15.8%	
	시 단위	10	56	38	13	0	117	
		76.9%	88.9%	80.9%	92.9%	0%	84.2%	
Total		13	63	47	14	2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체를 통한 농촌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사는 곳	군, 면	2	4	9	6	1	22	11.887(a)**
		33.3%	8.3%	14.1%	30.0%	100.0%	15.8%	
	시 단위	4	44	55	14	0	117	
		66.7%	91.7%	85.9%	70.0%	0%	84.2%	
Total		6	48	64	20	1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 3.5 농촌의 미래상에 관한 의식

앞서 조사한 평소 농촌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와 함께 더불어 발전할 농촌의 미래에 대한 의식의 결과 <표6-1>과 같다.

<표6-1> 발전될 미래의 농촌환경에 대한 조사

단위 : ( 명 )

질 문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이 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
미래 농촌 주거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7	60	45	24	3
미래 농촌 의료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4	34	42	53	6
미래 농촌 교육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	34	44	49	10
미래 농촌 문화 환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1	30	39	51	8

<표6-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래의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는 긍정적의견 67명(48%) 부정적의견 27(20%)명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주거환경을 제외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꺼라는 의견이 많게 조사 되었다. 내용으로는 의료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의견이 38명(27%)부정적의견이 60명(4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및 문화 환경의 경우에도 의료 환경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중 중립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많은데 이는 현재로써는 막연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현실가능성을 따져볼 때 농촌이 도시화 된다면 농촌의 농촌다움(Rurality), 어메니티(Amenity)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또한 도시와 복지시설의 절대적 비교 불가에 따른 결과로도 보여 진다.

미래 농촌 환경 환경을 여러 일반적 특성으로 교차분석 한 결과 남, 여간의 의식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6-2,3>이며 <표6-2>는 앞서 말한 농촌의 일반적 의식과 마찬가지로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6-2> 미래의 농촌의료환경에 대한 학년별 교차분석      단위 : 명 (백분율 %)

		미래의료환경은?					Total	Value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학 년	1학년	1	11	7	7	0	26	22.317(a) **
		25.0%	32.4%	13.5%	16.3%	0%	18.7%	
	2학년	3	9	16	5	1	34	
		75.0%	26.5%	30.8%	11.6%	16.7%	24.5%	
	3학년	0	12	18	21	4	55	
		0%	35.3%	34.6%	48.8%	66.7%	39.6%	
	4학년	0	2	11	10	1	24	
		0%	5.9%	21.2%	23.3%	16.7%	17.3%	
Total		4	34	52	43	6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표6-3>에서 나오듯이 미래의 주거, 의료, 교육, 문화 환경에 대해 남학생들의 생각은 비교적 지금보다는 나아 질 것이라는 생각에 비해 여학생들의 생각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도시에 비해 악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은 사물을 남, 여가 바라 봤을 때 사물의 단면만 파악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사물의 본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 이

결과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바라 봤을 때 남학생은 막연한 미래엔 지금보다 나아 질것이라 생각하고 여학생은 미래의 농촌을 도시와 비교, 거시적으로 바라봐 지금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해석된다.

<표6-3> 미래의 농촌 환경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단위 : 명 (백분율 %)

		미래주거환경은?					Total	Value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성별	남자	6	33	21	7	2	69	8.865(a)*
		85.7%	55.0%	46.7%	29.2%	66.7%	49.6%	
	여자	1	27	24	17	1	70	
		14.3%	45.0%	53.3%	70.8%	33.3%	50.4%	
Total		7	60	45	24	3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래의료환경은?					Total	Value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성별	남자	4	23	21	18	3	69	11.291(a)**
		100.0%	67.6%	40.4%	41.9%	50.0%	49.6%	
	여자	0	11	31	25	3	70	
		0%	32.4%	59.6%	58.1%	50.0%	50.4%	
Total		4	34	52	43	6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래교육환경은?					Total	Value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성별	남자	2	25	17	19	6	69	14.665(a)***
		100.0%	73.5%	38.6%	38.8%	60.0%	49.6%	
	여자	0	9	27	30	4	70	
		0%	26.5%	61.4%	61.2%	40.0%	50.4%	
Total		2	34	44	49	10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래문화환경은?					Total	Value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성별	남자	9	21	18	17	4	69	15.146(a)***
		81.8%	70.0%	46.2%	33.3%	50.0%	49.6%	
	여자	2	9	21	34	4	70	
		18.2%	30.0%	53.8%	66.7%	50.0%	50.4%	
Total		11	30	39	51	8	1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leq 0.05$  \*\*\* $p \leq 0.01$

<표7>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농업생산력에 대한 질문

에 대한 결과이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계속 심화 될 것이라고 보는가하는 질문엔 그렇다 의견 67명(48%) 아니다 22명(19%)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하는 질문엔 그렇다가 전체의 81명(58%)이고 그렇지 않다는 19명으로 보통이다 를 제외하고 봤을 땐 조사대상자들도 농촌의 탈 농촌화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미래의 농촌은 농업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현재 각광 받는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가능성 대해선 중간이상의 의견이 대다수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근로 여건에 관한생각은 보통 이다고 생각한 의견이 52%인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국가적인 정책지원 및 소득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수입증대 가능성에서 보이듯이 68명(50%)의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쁘지만은 않게 본다.

<표7>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농업생산력에 대한 조사 ( 명 )

질 문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이 다	아니다	매 우 아니다
산업화에 따른 도농의 격차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17	60	40	21	1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13	68	33	25	0
미래의 먹거리산업의 가능성을 대한 당신의 생각은?	13	53	53	19	0
미래의 먹거리산업의 근로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국가정책지원 및 소득지원)	3	39	71	23	0
미래의 먹거리산업의 수입증대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매우그렇다- 매우긍정적)	6	62	42	25	3

## 4. 결론

### 4.1 결론

현 4년제 대학생의 농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각 특성별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소 대학생이 농촌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의식은 의료, 교육, 문화시설 및 복지여건의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의 단순비교를 통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하겠다.

2. 이미 체결된 한미 FTA에 관한 생각은 농촌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그들의 본질적인 , 그들의 투쟁에 찬성의 의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농촌의 현재 처한 위기 또한 농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4.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중 하나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와 참여를 돕는 행사를 진행해야겠다.

5. 농촌의 미래의 모습은 부정적인 생각이 대다수이다. 농촌의 농촌다움(Rurality), 어메니티(Amenity)를 살리면서 도시와 복지시설의 절대적 비교 불가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국가적인 정책지원 및 소득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나쁘지만은 않다.

#### 4.2 제언

각 일반적 특성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인식이 바뀌야 비로소 농촌이 바뀐다 라는 motto 아래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주도자가 될 현 대학생들은 인식개선이 첫째라고 생각한다. 각각 개인 일반적 특성에 맞는 교육은 힘들겠지만 여러 특성을 고려한 대안은 앞으로 연구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농촌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 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대안제시는 미약하였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김경덕, 2004, 농촌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2. 박원순, 2007, 한국사회의 비전과 농촌의 역할
3. 박진도, 2007, 참여정부 농촌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4. 김대년, 2006, 한국 대학생의 주거규범과 관련변인별 차이 분석